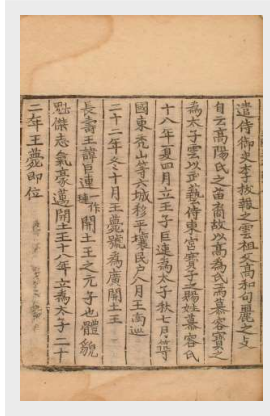


# 장수왕[長壽王]

## 한 세기를 지배한 고구려 전성기의 군주

394년(광개토대왕 4) ~ 491년(장수왕 79)



삼국사기 장수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 1 개요

장수왕(長壽王)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이례적으로 오랜 수명을 살았기 때문에 장수왕이라는 왕호를 받았다. 광개토왕(廣開土王)의 유업을 이어받고 평양 지역으로의 천도를 단행하는 등 국가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능동적인 외교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강국으로서 고구려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 2 평양으로의 천도

장수왕은 고구려의 제20대 왕이다. 광개토왕의 맏아들로 이름은 거련(巨連)이다. 중국측 사서에는 연(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외교 시 사용하던 중국식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체격과 용모가 뛰어났으며 뜻과 기운이 호방하고 컸다고 전한다. 408년(광개토왕 18) 태자가 되고, 412년 광개토왕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3년째 되는 414년에는 예법에 따라 부왕(父王)의 능을 조성해 시신을 모시고, 거대한 광개토왕릉비를 세워 그 훈적을 기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국내성(國內城) 지역에서 평양(平壤) 지역으로의 천도는 장수왕의 업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는 장수왕 혼자만의 결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평양 지역은 본래 낙랑군(樂浪郡)의 중심지로서 문화적으로 선진적인 곳이었다. 때문에 313년 미천왕(美川王)에게 복속된 이래 고구려 왕실로부터 꾸준히 중시되었던 곳이다. 장수왕의 증조부인 고국원왕(故國原王)은 평양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였고, 광개토왕 역시 평양에 절을 세우거나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평양 지역은 또한 남진 경영의 전진 기지로 이용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왜(倭)의 공격을 받던 신라가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 보낸 사신이 광개토왕을 만난 곳도 다른아닌 평양이었다. [관련사료](#)

고구려의 영역이 확장되고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갈수록 국내성 지역은 도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국내성 지역은 압록강변에 위치한 분지 지형이다.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농업 생산력과 교통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구려 초기부터 성장해온 귀족 가문들의 근거지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권을 추구하는 왕실에 부담을 주었다. 고구려 왕실은 국가 체